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제12기 운영대의원 정기회의 실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6.04.20 17:31 | 11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수자원 운영 효율화 등 논의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20일 지사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20일 지사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농어촌 발전과 주요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 ▲수자원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사업 등 지사의 핵심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장 및 양수장 운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손홍모 지사장은 "운영대의원회의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지역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공사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진형 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